

**1월 17일(월) / 시 115-118**

▶ **내용요약** : 시인은 인자와 진실하신 여호와와 이름에 돌리기를 호소하며 못나라의 우상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말하고 듣고 보지 못하는 것이기요 여호와와는 도움이요 방패이시기에 그를 의지하라고 말한다(115편). 시인은 평생 기도의 이유로 하나님의 응답을 제시하고 그는 사망의 고통중에 기도했다니 여호와께서 구원하셨기에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고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말한다(116편). 시인은 모든 나라에 여호와와 인자와 진실의 영원함을 근거로 찬송하라고 요청한다(117편). 시인은 여호와와 선함과 인자함의 영원함을 선포할 것을 요청하며 여호와께서 자신의 편이기에 그에게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와 권능과 행사를 선포하며 여호와께서 감사하라고 요청한다(118편).

▶ **질문** :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은 무엇인가?

▶ **생각하기** : 인자와 진실, 여호와와 성품이다.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기 어렵지만 여호와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이 영원하기에 그를 신뢰할 만하다. 당신이 어떤 급한 일과 위기에서 여호와를 신뢰한다면 어떻게 행동하는가?

**1월 20일(목) / 시 130-132**

▶ **내용요약** : 시인은 여호와께 자신의 기도에 귀 기울여 달라고 간청한다. 그러면서 죄인이 여호와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한다. 그는 죄용서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여호와를 기다린다(130편). 다윗은 마음이 교만과 오만하여 감당하지 못할 큰 일을 힘쓰지 아니하였음을 고백하며 자신의 상태가 젖뎀 아이의 모습으로 여호와를 바라라고 이스라엘에게 요청한다(131편) 시인은 여호와께 다윗의 겸손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한다. 그 겸손은 다윗이 여호와와 처소를 발견하기 까지 모든 것을 중단한 것을 예로 든다. 그러면서 시인은 여호와를 예배할 것을 고대하며 다윗과 맺은 언약 즉 다윗 왕위의 지속성과 시온에 여호와와 처소를 둘 것을 약속하신 것을 시키시기를 간구한다. 그는 여호와께서 다윗의 왕권을 빛나게 할 것이라는 여호와와 언약을 상기시킨다(132편).

▶ **질문** : 시인은 제사장들에게 어떤 옷을 입으라고 했는가?

▶ **생각하기** : 당신은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가? 그 간절함은 자신의 욕구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를 위한 간절함인가? 그 간절함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1월 23일(일) / 시 139-141**

▶ **내용요약** :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자신이 여호와를 피할 수 없으며 또한 그가 어디에 있던지 여호와와는 그곳에 계셨다고 고백한다. 또한 그는 여호와께서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자신을 지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정하셨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서 원수들이 떠날 것을 선포하며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길 여호와께 간구한다(139편). 다윗은 여호와께 뱀의 혀와 독사의 독이 있는 악인에게서 자신을 건져내시고 그들의 울무와 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한다. 또한 그는 여호와께서 전쟁 중에 자신의 간구에 귀 기울이신

**1월 18일(화) / 시 124-126**

▶ **내용요약** : 시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의 생존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상기한다. 그는 위기의 때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편이 되셨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음을 상기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노래한다(124편). 시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와 보호하심이 영원까지 있을 것이라고 노래한다. 그는 의인, 선한자, 정직한 자들을 선대하시며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것을 기원한다(125편). 시인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났을 때 상황을 꿈 꾸는 것과 같았고 기쁨으로 가득했다고 고백한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신 것이라고 고백한다. 그는 여호와와 큰 행사를 기대하며 농사의 비유를 통해 눈물과 기쁨을 대조하여 기쁨을 주시는 여호와와 행사를 노래한다(126편)

▶ **질문** : 시인은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 있다고 했는가?

▶ **생각하기** : 모든 것에 과정이 있다. 씨를 뿌리지 않고 곡식을 기대할 수 없다. 현대 사회는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정이 없으면 결과가 없다. 나는 과정과 결과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가?

**1월 21일(금) / 시 133-135**

▶ **내용요약** : 다윗은 형제가 동거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노래하며 그것은 대제사장 아론의 옷에 흐르는 보배로운 기름과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갈다고 고백한다(133편). 시인은 여호와와 성전에 있는 모든 종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요청하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을 선포한다(134편). 시인은 여호와와 성전에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선포한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여호와는 위대한 하나님이며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집트에 심판을 행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한 그는 우상은 손으로 만든 것으로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우상과 같기에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는 찬송받으실 것을 선포한다(135편)

▶ **질문** : 시인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분은 누구라고 했는가?

▶ **생각하기** : 은혜, 은혜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행위를 가리킨다. 우리 삶의 흔적에는 모두 '은혜'라는 흔적이 어기 저기에 남아 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 그 은혜 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다. 당신이 기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구원의 능력의 주이시며 악인의 피가 이루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공평 한 자에게 정의를 베풀기를 간청한다(140편). 다윗은 여호와와 응답을 간절히 기울이며 자신의 기도가 분향과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자신의 입술을 지키시고 악을 행하지 말게 해달라고 간청한다. 그리고 그는 재난 중에 항상 기도하였고 환란 중에 여호와께 피하였기 때문에 버려두지 말고 악인의 울무와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말한다(141편)

**1월 19일(수) / 시 127-129**

▶ **내용요약** : 솔로몬은 집과 전쟁의 이미지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행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며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한다. 그는 자식의 중요성을 여호와와 기업, 장사의 수종의 화살과 화살통에 가득한 것을 주목하면서 그것이 복이라고 말한다(127편). 시인은 여호와와 길을 걷는 자에게 복되고 형통할 것이라고 말하며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 자식들은 감람나무로 비유하며 가정의 중요함을 말한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번영과 가문의 지속성을 선포하며 평강을 기원한다(128편). 시인은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을 상기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악인들을 끊으셨기에 그들에게 수치를 선포하며 그들이 지붕의 풀과 같이 무익하게 될 것을 선포하며 악인들은 여호와와 사람들이 축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한다(129편)

▶ **질문** :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 했는가?

▶ **생각하기** : 경외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이다. 그 두려움은 군림하는 힘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과 장엄함에서 오는 반응이다. 당신은 여호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1월 22일(토) / 시 136-138**

▶ **내용요약** :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요청하며 그 이유를 여호와와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그러면서 그는 여호와와는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며, 우주만물을 창조하였으며,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광야에서 인도 보호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으며 모든 대적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분이라고 소개한다(136편). 시인은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던 이유가 자신들을 포로로 잡은 자들이 자신들을 위해 여호와를 위한 노래 중 하나를 부르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시인은 여호와께 예루살렘의 멸망한 날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며 바벨론에게 행한 대로 갚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을 기원한다(137편). 시인은 성전을 향해 예배하는 것을 감사하며 세상 모든 왕들이 여호와와 말씀을 노래하고 찬송할 것을 바라본다. 그는 환란 중에 여호와와 구원을 확신한다(138편)

▶ **질문** : 시인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말하며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했는가?

▶ **생각하기** : 감사는 우리 삶을 바꾸고 행복하게 한다. 그래서 바울은 범사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 당신은 감사와 불평 중에 어느 것이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가?

▶ **질문** : 다윗은 자신의 입에 무엇을 세워달라고 간청하는가?

▶ **생각하기** : 말,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면을 파괴하거나 내면을 기쁘게 한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지만, 그 입술의 열매를 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떤 것인가? 그 말은 그 내면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과연 그것은 자신과 타인을 위해 유익한 말인가?